



해외양계뉴스



세계

육계산업 주도권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

앞으로 육계산업이 서양에서 동양(특히 극동)으로 주도권이 이동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 같은 발표는 로스사의 Paul Gittins 사장이 지난 VIV Asia 99 박람회 기간중 세미나장에서 발표하였는데 그는 세계의 54%의 인구를 차지하는 아시아가 최근 들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닭고기 소비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중국의 경우 1998년도 1인당 소비량이 세계 소비량의 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이 물량은 지난 10년전보다 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이 수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1997년도 세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비율을 보면 미국 39.6%, 캐나다 28.4%, 브라질 23.8% 영국 20.5%, 멕시코 17.8%, 태국 12.2%, 이탈리아 11.5%, 독일 7.8%, 러시아 9.8%, 이집트 5.6%, 인도 1.0%로 나타났으며 이중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은 이미 소비량이 증가된 나라, 멕시코 등 4개국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되는 나라, 중국 등 4개국은 소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나라로 분류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였다.(APM)

일본

닭 방사장에서 식중독균 발견

일본에서 방사를 하여 매일 800개의 계란을 학교급식용으로 좋은 가격에 출하를 해오던 한 농가에서 식중독균(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생산은 물론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계란에서 식중독균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식중독균은 살모넬라의 일종으로 방사장의 흙표면에 침투한 외부균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상태에서 흙에 오염되었을 경우 균을 완전 제거하기가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여

이 농장은 부득이 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방사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일반식당에서 1개에 30엔(한화 약 330원)에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소비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방사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鶏の研究)

### 육계 사육호수 3,766호, 출하수수 5억7천만수

일본 농수성이 발표한 1998년도 육계사육 호수 및 출하수수를 보면 사육호수가 3,766호, 출하수수가 571,658,000수로 나타났다.

규모별 사육호수를 보면 1~2만수가 33%로 가장 많고 5만수 미만은 29%, 5~10만수가 19%, 20~30만수가 10%, 30~50만수가 6%이며 50만수가 넘는 곳도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별 사육수수를 보면 가고시마현(18%), 미야자키현(17%), 이와테현(15%)순으로 주로 남부지역에서 육계업이 발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鶏の研究)

### 카자흐공화국

#### 추락하는 산란계 산업

카자흐공화국의 계란생산이 올해 11%가 감소한 32억개의 계란이 생산될 것으로 농림부에서 예측하였다. 이 같은 원인은 경제난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자급수요량이 16억개에서 12억개로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같은 기간 조사된 산란계 수수는 1천1백만수에서 3%감소한 1천2백만수로 나타났다.(PI)

### 대만

#### WTO 수입개방 압력에 굴복

대만이 그 동안 섬나라의 특권을 주장하며 WTO(세계무역기구)의 끈질긴 개방압력에 저항해오다 결국 이에 굴복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에 대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문호를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매년 22,500톤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입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며 유럽 여러나라들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10,000톤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도록 WTO에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 대만이 머지않아 모든 식육에 대해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APM)

### 태국

#### 한국에 계란수출을 계기로 1억개 수출 목표 순항

태국이 지난 2월 한국에 260만개의 계란을 수출하면서 연간 1억개의 계란을 수출기로한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태국의 수출 관계자들은 유럽에 수출할 물량중 일부가 차질이 오면서 계획조정이 불가피했으나 한국에서 수입을 요청해와 결국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한국의 요청이 있어 더 많은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홍콩으로 홍콩수입량의 절반정도를 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APM)